

# 인문대 소식



발행처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주소 부산시 금정구 부산대학로 63번길 2(장전동)  
발행일 2016년 9월 전화 051-510-1501 발행인 조강희 편집인 이선진  
디자인/제작 부산대학교출판부 전화 051-510-1932

## 학사 일정

2016. 9. 1(목) 19(월)~23(금) 23(금)	2016학년도 제2학기 개강 대학원 학위청구자격 종합시험 대학원 학위청구자격 외국어 시험
10. 5(수)~10(월) 10(월) 11(화) 24(월)~28(금) 28(금)	2016. 2학기 수강취소(W) 신청 2016학년도 전기 학위청구 심사용 논문제출 수업일수 1/3선(군제대자 복학 마감) 2016. 2학기 중간고사 수업일수 1/2선 (일반휴학 마감)
11. 3(목)~9(수) 16(수) 16(수)~18(금)	201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대상자 복학신청 수업일수 2/3선 2016학년도 겨울계절수업 수강신청
12. 1(목)~15(목) 14(수)~20(화) 21(수)~2017. 1. 3(화)	2017. 1학기 재입학 신청 2016. 2학기 기말고사 2016. 2학기 강의평가
2017. 1. 5(목)  16(월)~26(목) 2. 24(금)	2016학년도 전기 학위논문 심사결과 보고서 및 최종논문 제출 2017. 1학기 국·영문 교수계획표 입력 2016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 Contents

02 | 미리내 단상 · 교수동정 · 동문소식 03 | 인문대 소식 · 학과 · 연구소 소식 08 | 신간소개

### 고현철 교수 1주기 추모식

고현철 교수 1주기 추모식이 2016년 8월 17일 인문관 필로티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조강희 추모사업회회장(부산대학교 인문대 학장), 전호환 총장, 소경애 여사 등 유족, 송기인 전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장, 조흥식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 회장, 전병학 교수회장 등 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 행사는 추도사, 추모공연, 추모 조형물 제막, 헌화 및 묵념, 고현철 교수 문고 개소식(제1 도서관) 순으로 진행하며 대학 민주화를 위한 고인의 숭고한 뜻을 되새기는 추모식이 되었다.



### 부산대학교 인문대학과 북해도대학 문학부 공동 심포지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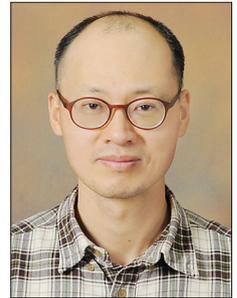
▶주제 :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부의 발전 방안 모색 ▶일시 : 2016년 6월 21일(화) ▶장소 : 북해도대학 문학부 강당  
2016년 6월 21일 부산대학교 소속 교직원 52명은 북해도대학 문학부 및 문학연구과를 방문하여 연구자 간에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문학의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를 발표하고 의견을 교환하였다. 제1부는 양 대학의 역사, 현황, 앞으로의 국제교류 전망 등에 대하여 정보 교환을 하였다. 북해도대학에서는 山本(야마모토) 연구과장과 미셀 라페이 국제교류실장이, 부산대학교에서는 조강희 인문대학장이 발표를 하였다. 그리고 양 대학의 역사, 현황, 장기발전 계획 등에 대한 홍보영상을 시청하였다. 제2부는 양 대학의 교수가 전공, 학과별로 분과를 나누어서 같은 연구분야나 교육에 대한 토론을 실시하였다. 일본어, 한국어, 중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등 분과 별로 언어가 달라도 아주 유익한 분과 발표회가 실시되었다. 제3부에서는 학교 시찰의 일환으로 학교식당, 도서관, 식물원 등을 시찰하였으며, 특히 직접 학생식당을 이용하면서 부산대학교의 학생식당 개선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의견교환을 하였다. 오후는 북해도대학의 식물원과 박물관을 시찰하였다.



## 피서(避暑)

이번 여름에 주로 학교와 집에만 있었다. 8월 15일, 방학을 반 달 남겨놓고 이리다간 울여름이 아무런 추억거리도 남기지 않고 그냥 지날 것 같아서 나도 피서를 가기로 했다. 그동안 이름만 들어왔던 금정산 약수터를 지나 운동장에 갈 때마다 올라다보기만 했던 봉우리를 직접 답사하기로 했다. 초행이었지만 약수터를 찾기 어렵지 않았다. 운동장 뒤 등산로를 따라가니 닿을 수 있었다. 35도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음산하고 냉기가 느껴졌다. 가는 관에서 나오는 물은 얼음을 띄운 물보다도 더 시원했다. 운동장이 내려다보이는 정상에 도착하니 그곳은 아주 넓은 치마바위였다.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보니 내가 이곳에 온 지 벌써 1년 반에 지났다. 산이랑 걷길 좋아해서 처음 이곳에 왔을 때 금정산을 바라보고 너무 맘에 들었다. 주말마다 산에 올라갈 줄 알았다. 그런데 1년 반 만에 처음 올라간 것이었다. 지난 일 년간 내 생활 방식이 많이 바뀌었다. 이곳에 오기 전에는 학기 중에 공부 열심히 하고 방학 때는 취직원서 쓰고 면접 다니기 바빴기 때문에 공부할 수 없었다. 그런데 요즘은 학기 중에는 수업하기 바빠서 연구를 못 하고 방학 때만 공부를 한다. 그야말로 학기 중에는 수업 준비하기 바빠서 눈코 뜰 새 없고 방학 때는 밀린 숙제를 하느라 정신없이 지낸다. 하지만 둘 다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력은 일 년 만에 벌써 확 떨어지는 것을 느꼈다. 가끔은 나 자신이 알을 더 낳게 하려고 한밤중에도 전깃불을 환하게 밝혀놓은 양계장 울타리에 갇혀있는 산란계 같다고 느낀다.



윤욱  
사학과

부산에 이사 오기 전 내가 살던 곳은 서울 중랑천 옆이었다. 매일 세 번, 적어도 두 번 중랑천에 나갔다. 아침 먹기 전에 조깅을 하고 돌아왔고, 처가 회사 나가면 낮에 혼자 가끔 점심을 먹고 중랑천 변을 거닐곤 했다. 그리고 저녁을 먹은 후에는 어김없이 또 그곳에 가서 강바람을 쐬고 와야 마음을 가다듬고 다시 공부할 수 있었다. 중랑천에 나가는 시간이 낭비하는 시간이 절대 아니었다. 대부분 멍하니 걸었지만, 때로는 속세에서 쌓인 분을 씻이기도 하고, 가끔은 논문을 구상하고, 글을 어떻게 다듬어야 할지 생각하는 시간이었다. 멍하니 강물 속 물고기를 보고, 갈대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던 그 시간이 그림다. 부산대학교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그 시간을 다시 찾아올 수 있을까? 복도에서 손에 잡힐 정도로 가깝게 있는 금정산을 바라볼 때마다 잠깐 고민해본다.

## 교수동정

### 교수 장기파견

남덕현 교수(중어중문학과학과) 1년(미국 : 2016. 8. 2.~)

### 단신

권순복 교수(언어정보학과)는 2016년 7월 28일 '증강현실 기반의 의사소통장애 재활시스템 적용을 위한 기반지식 응용'이란 제목으로 한국연구재단 학제간융합연구사업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권연진 교수(언어정보학과)가 8월 24일과 25일 이틀간 부산대학교 인문관에서 열린 한국언어과학회 및 한국코퍼스언어학회 공동 주관 '2016년 국제학술대회'에서 우수 논문 발표 및 학술발전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아 「제7회 국천학술상」을 수상했다.

이재성 교수(영어영문학과)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 위치하고 있으며 세계의 대학교수들과 그들의 업적을 소개하는 스웨덴어로 이루어지는 유명 학술잡지 *Universitet slårare*의 기자 Sören Viktorsson의 방문 취재를 받았다. 최신의 포스트모던 윤리학을 불교와 도교의 사상에 접목하여 새로운 문헌비평이론을 생성시킨 최초의 책인 이재성 교수의 저서 *Postmodern Ethics, Emptiness, and Literature: Encounters between East and West*에 착안하여 방문, 취재하게 되었으며, 부산대학교와 한국의 대학교육 전반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누었으며 부산대학교와 부산대학교 주변의 사진도 재미있게 실렸다. 이

교수의 저서는 미국 Lexington Books에서 2015년 12월 출간되었으며, 후에 원효학술상 대상을 수상하였다.



## 동문소식

### ● 사학과 동문, 경북대, 목포대 사학과 교수 임용

2016년 3월 사학과 동문 김경남(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이 경북대 사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사학과 동문 한정훈(부산대학교 92, 동대학원 졸업)이 목포대 사학과 교수로 임용되었다.

인문학 최고과정 입학식 개최

부산대학교 '인문학 최고과정' 제2기 입학식이 2017년 3월 16일 상남국제회관에서 거행되었다. 제2기 입학생은 박중호(센텀병원장) 등 43명이 입학하여 1년간 인문학 강의를 수강하게 된다.



부산대학교 인문학 최고과정 제2기 장학증서 수여식

2016년 9월 7일 부산대학교 인문학 최고과정 제2기 원우들의 뜻을 모아 「인문학 최고과정 제2기 장학금 수여식」을 가졌다. 장학금은 12개학과 학부생들에게 각1백 만원씩을 전달하였다.



2016학년도 2학기 학과장 명단

2016학년도 제2학기 학과 및 협동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총괄하게 되는 학과장 및 협동과정 전공주임 교수는 다음과 같다.

- | 국어국문학과장 김경연 교수 (2016. 1. 15)
- | 중어중문학과장 이지은 교수 (2016. 8. 1)
- | 일어일문학과장 김임숙 교수 (2016. 8. 29)
- | 영어영문학과장 김용규 교수 (2016. 1. 15)
- | 불어불문학과장 이송이 교수 (2016. 3. 1)
- | 독어독문학과장 허영재 교수 (2016. 2. 1)
- | 노어노문학과장 최동규 교수 (2016. 2. 1)
- | 한문학과장 김남이 교수 (2015. 9. 1)
- | 언어정보학과장 권순복 교수 (2016. 3. 1)
- | 사학과장 서영건 교수 (2016. 3. 1)
- | 철학과장 주광순 교수 (2016. 1. 1)
- | 고고학과장 배진성 교수 (2016. 3. 1)
- | 인지과학협동과정 전공주임 권순복 교수 (2015. 9. 1)
- |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전공 협동과정 전공주임 권연진 교수 (2015. 3. 1)
- | 과학기술협동과정 전공주임 주광순 교수 (2016. 9. 1)

고고학과

◎ 2016년 고고학과 대학원 중국답사

매년 실시하는 고고학과 대학원 해외답사를 올해도 실시하였다. 올해는 중국 환인 및 집안 일대를 답사지역으로 정해, 6월 27일~7월 1일까지 4박 5일의 일정으로 환인 하고 성자성터, 오녀산성, 집안 국내성, 한도산성, 산성자고분군, 집안박물관, 광개토태왕릉 및 대왕비, 장수왕릉 등 일대의 고구려 유적을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여 귀국하였다. 또한 중국에서 수학 중인 동문들, 부산대학교에서 유학 후 중국 길림대학에서 교수로 재직 중인 조준걸(趙俊杰) 등 여러 동문과 현지에서 답사를 같이하는 등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국어국문학과

◎ 국어국문학과 학술현장답사



국어국문학과에서는 3월 23일부터 25일까지 2박 3일간 학술현장답사를 다녀왔다. 이번 답사는 경남 남해, 통영, 하동 일대의 문학관 및 박물관, 문화유적 등을 둘러보고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낮에는 답사를 통해 문학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저녁에는 신입생·복학생 환영회를 겸하여 교수와 학생의 유대감을 고취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 제23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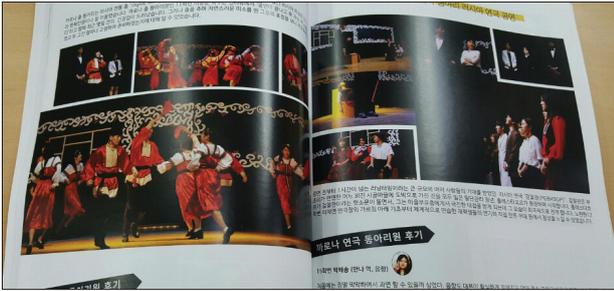


부산한글학회와 주최하고 부산광역시 후원하는 제23회 부산지역 대학생 학술논문 발표대회가 2016년 5월 21일 인덕관에서 진행되었다. 부산지역 각 대학의 학생들이 국어학·국어교육·언어학·한국어교육 분야에서 연구한 논문을 발표했으며, 국어국문학과에서는 석연희(14) 학생이 「-답-형태소 설정 논의」를 발표하였다.

## 노어노문학과

### ● 노어노문학과 20주년 기념문집 발간

지난 2015년 노어노문학과가 20주년을 맞이하여 치른 행사의 내용과 20년을 맞이하기까지 걸은 노문인의 발자취, 그 속에서 느끼고 숨 쉬는 교수님들과 학생들의 소록소록한 이야기들을 만나볼 수 있는 문집이 발간되었다. 밤낮 준비하며 행사를 치른 만큼, 이 문집을 발간하기까지에도 많은 학생이 너무나도 많이 애쓴 흔적이 담긴 문집이다. 이 문집은 행사 동영상과 사진들이 담긴 USB와 편지와 함께 20주년 행사에 참여한 교수님들과 선배들의 두 손에 배달되었고, 재학생들은 2학기가 시작되면 받을 수 있다.



## 불어불문학과

### ● 2016 불어불문학과 신입생 환영회

2016년 3월 25일~26일 불어불문학과는 금정 오마일랜드 일원에서 불어불문학과 신입생·복학생 환영회를 가졌다. 약 40여 명의 학생과 교수님이 참석하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신입생과 복학생, 그리고 편입생들의 학교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학과

### ● 2016학년도 정기답사

사학과 행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정기답사를 2016년 3월 29일부터 4월 1일까지 3박 4일간 떠났다. 이번 답사는 14, 15학번 답사준비위원회의 주도를 통해 경상북도·충청도 일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답사 참여인원은 교수님 3분, 조교 1인, 학부생 124명이었다. “정곡을 찌르다”라는 기치아래 삼국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여러 시대를 아우른 답사지를 선정하였다. 송산리 고분군부터 부소산성, 부석사, 병산서원, 해위 윤보선 전 대통령 생가 등을 다녀왔다. 답사지에 들 때마다 준비해간 답사자료집을 보면서 학생 발표와 교수님의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역사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언어정보학과

### ● 언어정보학과 신입생환영회

언어정보학과는 송정으로 2016년 3월 18~19일, 1박 2일간의 신입생 환영회를 다녀왔다. 60여 명의 신입생과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교수님들이 참여한 신입생환영회에서 학생들은 친목을 도모하고 추억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 언어정보학과 체육대회

언어정보학과는 2016년 5월 6일 30여 명의 재학생과 교수님들이 넉넉한 터에 모여 축구, 발야구, 피구, 줄넘기, 달리기 등 다양한 경기를 진행하였다. 재학생들과 교수님은 함께 땀 흘리고 운동하며 친목을 도모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영어영문학과

### ● 2016 영어영문학과 어학·문학·번역전공 봄 산행

영어영문학과 어학·문학·번역전공 석박사 재학생 및 졸업생들은 지난 4월 30일 전공교수님들과 함께 2016년 봄산행을 금정산 일대로 다녀왔다.



### ● 대학원 동계세미나

영어영문학과는 2016년 2월 26일 상남국제회관에서 2016년 영어영문학과 대학원 동계세미나를 개최하여 전공별 학위청구논문 예비 발표회와 신입생 환영회를 열었으며 소속 교수님들과 재학생과 함께 16학년도 대학원 석박사 신입생 환영회의 시간을 가졌다.



● 동문장학금 수여식

영어영문학과에서는 지난 2월 22일 제12회 영어영문학과 동문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2010학년도 1학기부터 매 학기 영어영문학과는 동문회 발전기금 출연으로 학부 각 학년의 성적우수자를 선정,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 저명학자 초청 특강 - 번역가 이미도

영어영문학과는 6월 3일 인문관에서 100여 명의 학생과 교수가 참석한 가운데 외화번역가 겸 작가인 이미도 씨의 특강을 개최했다. 이 작가는 영화 '반지의 제왕', '쿵푸 팬더', '슈렉' 시리즈 등 500여 편의 외화번역과 저술 활동, 일간지 칼럼 연재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강연 서두에 강사가 번역한 외화 시리즈를 소개했다. '번역은 장미꽃밭에서 맨발로 춤추기'라는 제목으로 시작된 이 강의는, '외화번역 전문가의 실무 경험담 및 앞으로의 발전 방향 제시'라는 강의 주제에 걸맞게 외화번역 영역에서 실제 종사자의 강연을 통하여 참석자들에게 외화번역에 관한 필요한 정보, 지식 및 이해를 제공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참석자들과 토론 및 질의·응답을 통해 외화번역에 대한 영어영문학과 소속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켰다.



● 신입생 환영회

영어영문학과에서는 2016년 4월 2일부터 3일에 걸쳐 해운대 청소년수련원에서 2016학년도 학부 신입생 환영회를 개최하여 학부 신입생들과 재학생, 교수님들과 졸업생들의 친목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일어일문학과

● 신입생 환영회

일어일문학과 행사 중 빠질 수 없는 새또맛이! 3월 18일~19일 양일간 행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이 준비한 마술공연과 장기자랑, 그리고 새또맛이의 메인 이벤트인 미스 일문을 진행하며 교수님들과 학생의 유대감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신입생과 재학생들의 학교생활에 대한 정보교환, 친밀감 형성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진 시간이었다.

● 특강 및 분임 토의

4월에는 김정산성에서 일어일문학과 특강 및 분임 토의를 개최하였다. 교수님과 학생들이 함께 산행하며 소속감과 유대감을 돈독히 할 기회가 되었다.

● 일본학 초청강연회

6월에는 일어일문학과와 일본연구소에서 공동 주최하는 '일본학 초청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일본 조지대학에서 오신 세마 마사유키 교수님께서 「繩文神話の再照明」(조몬신화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강연하셨으며, 조몬신화에 대한 흥미 유발은 물론 심도 있는 연구 결과를 접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다.



중어중문학과

● 2015학년도 전기 중어중문학과 졸업식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월 26일 411호에서 2015학년도 전기 중어중문학과 졸업식을 거행하였다. 졸업생 25명 가운데 15명이 참석하였으며, 이 자리에는 남덕현 교수님과 이지은 교수님, 재학생들, 학부 모임들이 함께 참석하여 졸업생들을 축하해주었다. 졸업생들을 위한 남덕현 교수님의 인사말에 이어 졸업생들의 학위 수여 및 기념품 증정이 있었으며, 13학번 학생회장 김도열 학우가 재학생을 대표하여 송사를 하고, 08학번 김홍익 학우가 졸업생을 대표하여 답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졸업생, 교수님과 함께 기념 단체 사진을 찍는 것으로 졸업식을 마무리 하였다.



● 중어중문학과 답사(중문인의 한마당)

중어중문학과에서는 2016년 4월 1일부터 4월 2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경주 일대 역사 유적지를 답사하였다. 신입생과 재학생, 남덕현 교수님, 이지은 교수님, 조교 등 75여 명이 참가하였으며, 이번 답사는 강의실 너머 교수와 학생이 교류하는 어울림의 마당으로, 신입생과 재학생이 서로 화합하는 장이 되었다.



## 철학과

### ◎ 2016년 철학과 오픈 캠퍼스 개최

철학과는 2016년 5월 21일에 2016년 철학과 오픈 캠퍼스를 개최하였다.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된 본 행사에서는 총 41명의 고등학생이 참여하여 철학과의 교육과정, 학부 행사 등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본 행사에서는 참여 학생들과 철학과 재학생들이 분반을 편성하여 대학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한문학과

### ◎ 한문학과 춘계답사

한문학과에서는 지난 3월 4~5일 경남 밀양 일대로 춘계답사 겸 신입생환영회를 다녀왔다. 점필재연구소, 밀양박물관, 영남루, 오연정, 금시당 등 밀양 일대의 문화 유적지를 답사하고 저녁에는 신입생환영회 행사를 개최하였다. 행사를 마치고 선배와 후배, 그리고 교수님들과 함께 학교생활, 진로, 교우관계 등 수업 시간에 다하지 못했던 간담회 시간을 가졌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 해를 시작하며 한문학과 식구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 해의 단합을 다지는 소중한 자리였다.



### ◎ 개교70주년 기념 제18회 효원성년제

일시 : 2016. 5. 17. 15:00~17:00

장소 :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 옆 잔디광장

한문학과에서는 매년 5월 '성인의 날'에 즈음하여 전통적인 형식을 갖춘 '효원성년제(曉原成年祭)'를 실시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신입생과 재학생들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해 주는 자리이다. 올해 18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개교 70주년 기념으로 열려 더욱 뜻깊었다. 뿐만 아니라 진정한 어른으로서, 지성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사회적 책임감을 다짐하는 뜻깊은 자리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성년제는 지원자가 80명(참여자 200여 명)을 넘어 부산대학교 넉넉한 터에서 진행하였으며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의 협찬으로 국악공연도 함께하였다.



## 인문학연구소

인문학연구소는 점필재연구소, 인문한국(HK)[고전번역+비교문화학연구단]과 합동으로 국내학술대회 및 여러 차례의 연속기획특강과 연례 학술발표회, 인문학담론모임, 콜로키움 등을 개최하는 한편 대중강좌를 통한 다양한 주제의 인문학의 장을 마련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였다. 국내학술대회는 「문화생태성의 복원과 또 다른 '세계/보편'의 가능성」이라는 제하에서 「주변의 눈으로 보고, 주변부의 목소리를 듣다」(4.1)와 「근현대 한국의 문화생태와 주변성을 말하다」(6.3)라는 주제로 2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국내 연구자들과 함께 '특수와 보편의 근대적 이분법'을 넘어 새로운 차원의 '세계/보편'을 제시할 '주변성Marginality'을 성찰해보는 자리를 가졌다. 2016년 상반기 연속기획특강이 39강 「2006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오르한 파묵 문학의 세계성」(이난아, 계명대, 3.11), 40강 「점과 선: 텍스트를 문학적으로 읽는 또 하나의 방법」(이재연, unist, 4.7), 41강 「곤혹스러움을 넘어선 가능성-오키나와 문학의 현장」(곽형덕, KAIST, 5.13)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제6차 우리시대의 고전읽기 질문총서 컬로키움이 8월 23일~25일 사흘에 걸쳐 「마루야마 마사오의 "일본근대 정치사상사" 읽기」(김석근, 아산서원), 「백낙청의 "민족문학과 세계문학1" 읽기」(김명환, 서울대 영어영문학과), 「에티오피아 발리바르의 "평등자유명제" 읽기」(진태원,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가 개최되었다. 한편 인문학연구소와 부산동구 쪽방상담소는 「삶과 죽음을 대하는 지혜」라는 주제로 "제10기 희망의 인문학 강좌"를 진행하였으며, 이와 함께 대중강좌가 해운대구 문화복합센터, 양산 시립도서관과 양산 웅상도서관, 그리고 부산교육연수원에서 인문학특강으로 진행되어, 영화와 문학, 철학과 역사를 넘나드는 다채로운 강의가 전개되었다.



## 점필재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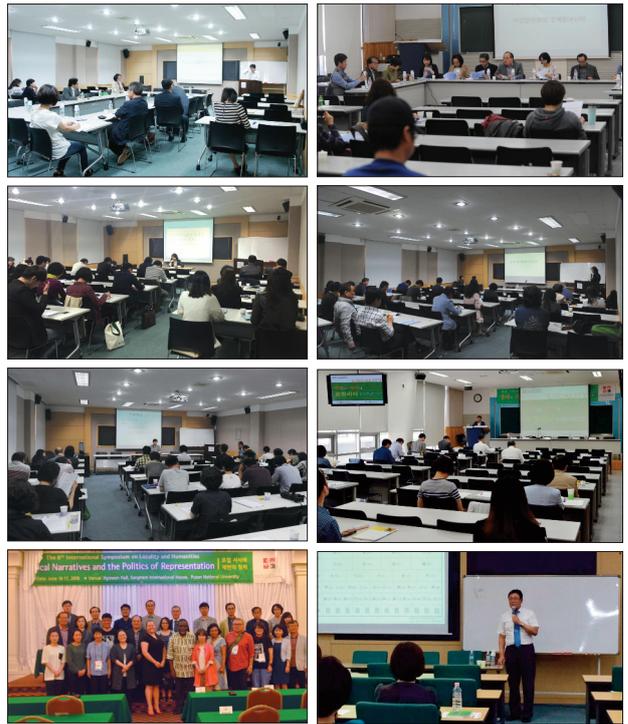
### ◎ 국제학술대회

부산대학교 점필재연구소는 7월 14~15일 양일간 부산대 밀양캠퍼스에서 "동아시아의 수신서 번역과 문명전환의 논리"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동아시아 3개국의 연구자들이 모여 근대시기 윤리와 수신을 주제로 한 텍스트를 중심에 두고 동아시아 문명전환기의 치열한 문제의식을 재조명하는 장이 되었다. 1부에서는 동아시아 근대교육제도의 확립과 신윤리, 2부에서는 동아시아 근대수신서의 전래와 번역을 다루었고, 3부에서는 동아시아 전통수신서의 번역과 조선적 변용을 논의하였다. 4부 집담회에서는 동아시아 문명전환과 수신서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두고 진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점필재연구소에서는 한국 고전번역의 역사적 전개와 다양한 학술적 논점을 탐구하면서 동아시아적 지평을 확보하고자 노력해 왔다. 고전번역과 국제관계에 대한 그간의 축적된 연구에 근거하여 이번 학회에서는 동아시아에서 수신서의 번역과 문명전환의 관계를 탐색해보는 기회가 마련된 것이다.



◎ 제8회 인문고전독서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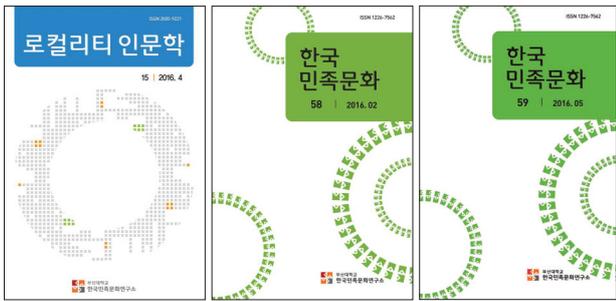
점필재연구소에서는, “청년, 우리의 미래를 생각하다”라는 주제로 제 2016년 8회 인문고전독서교실을 시작하였다. 인문고전독서교실 프로그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인문고전 관련 저자를 초청하여 강의 독서토론, 주제별 글쓰기를 통해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고 인문고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독서캠프>를 포함한 총 6강으로 구성된 이번 강좌는 5월 21일 “우리의 삶과 정치”라는 주제로 하승수 변호사의 강의를 시작으로 9월 10일 “고전과 삶”이라는 주제로 배병삼 선생님의 강의까지 총 6강에 걸쳐 이루어진다.



한국민족문화연구소

◎ 출판

‘로컬리티 인문학’ 제15호 발간(2016. 04. 30.) 및 ‘한국민족문화’ 58, 59집 발간(2016. 2. 29., 5. 31.)



◎ 학술행사

- 내셔널 지오그래픽 연구지원 프로그램 세미나
  - 일시: 2016. 3. 25. • 장소: 부산대학교 인문대학 교수연구동 210호
  - 부산대학교·브리시컬럼비아대학교 임진왜란 공동워크숍
    - 일시: 2016. 6. 14.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29~32회 학술세미나
    - 제29회 마을연구와 로컬리티
      - 일시: 2016. 4. 1. • 장소: 부산대학교 인문관 501호(시습관)
    - 제30회 지역서사와 재현
      - 일시: 2016. 4. 20.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제31회 화교와 로컬리티
      - 일시: 2016. 5. 19.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제32회 공동체와 로컬리티
      - 일시: 2016. 7. 5.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소회의실
  - 인문한국(HK)연구소 공동학술심포지엄
    - 「디지털 시대 인문학의 현재와 미래」
      - 기간: 2016. 3. 25. • 장소: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커넥트를
    - HK로컬리티의인문학연구단 제9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생태와 대안의 로컬리티」
        - 기간: 2016. 5. 27. • 장소: 부산대학교 인문관 501호
      - 로컬리티의 인문학 제8회 국제학술심포지엄
        - 「로컬 서사와 재현의 정치」
          - 기간: 2016. 6. 16.~17. • 장소: 부산대학교 상남국제회관 효원홀

◎ 초청강연회

청화와 함께 하는 역학 기행, 춘하추동과 인생  
 • 일시: 2016. 6. 30. • 장소: 부산대학교 인덕관 대회의실

◎ 시민강좌

- 세상을 여는 아름다운 인문학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과 공동)
  - 2016. 4. 5. 일본 도쿄 쓰키지 시장
  - 2016. 4. 7. 터키 그랜드 바자르
  - 2016. 4. 12. 미국 로스앤젤레스 농민시장
  - 2016. 4. 14. 중국 베이징 리우리창 문화시장
  - 2016. 4. 19. 캐나다 장말롱 시장
  - 2016. 4. 21. 이집트 카이로 카릴리 시장
  - 2016. 4. 26. 모로코 페스 가족시장
  - 2016. 4. 28. 스페인 바르셀로나 보케리아 시장
- 2016년 상반기 <길 위의 인문학: 원도심을 걷다>
  - 일자: 2016. 6. 11. • 장소: 경남 진해
- 한국사 아카데미 “한국문화와 함께 하는 한국의 역사”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공동)
  - 2016.7. 5. 영화로 만나는 부산
  - 2016.7. 12. 영화의 안과 밖, 조선족의 낯선 삶들-영화 <신세계> 와 <두만강>
  - 2016.7. 19. 영화<귀향>과 종군위안부의 역사
  - 2016.7. 26. 조선의 전쟁을 읽다-영화 <최종병기 활>과 <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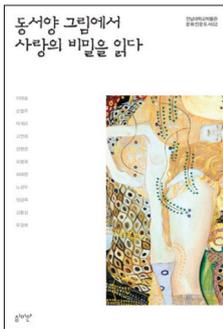


##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

강명관 지음 | 휴머니스트 | 2016

이혼 소송을 통해 본 조선 가부장제 500년! 조선 시대에도 지금처럼 이혼이란 것이 있었을까? 속종 16년, 양반 유정기는 아내 신태영을 시부모에게 불효했다는 이유로 쫓아낸다. 그로부터 14년 후, 유정기는 공식적으로 이혼을 요청하지만 예조는 법조문이 없다는 이유로 허락하지 않는다. 그렇게 9년 동안 진행된 유정

기와 신태영의 이혼 소송은 유교적 가부장제 사회였던 조선의 성격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동시에 가부장제의 권력 집행에 저항하는 여성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매우 드문 사건이다. 『신태영의 이혼 소송 1704~1713』은 조선을 뒤흔든 희대의 이혼 소송의 기록을 꼼꼼히 복기하여 조선 가부장제 이면의 숨은 이야기를 꼬집어낸다. 그 속에는 조선 건국 시기부터 시작된 유교적 가부장제의 탄생과 공교화 과정에 따른 가부장제의 권력 집행과 저항의 역사가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 저자는 양측의 주장을 살피고 분석하는 한편, 각자의 주장 이면에 숨어 있는 조선 가부장제의 욕망과 모순을 생생하게 드러낸다.



## 동서양 그림에서 사랑의 비밀을 읽다

강명관 외 지음 | 심미안 | 2016

『조선시대 남녀 관계와 애정의 양상을 다룬 조선시대의 남과 여, 그리고 애정』(강명관)외 10편의 글로 이루어진 이 책은 멀리 그리스신화를 다룬 그림에서부터 한국의 오지호, 김환기, 천경자의 그림까지 동서양화에 나타난 사랑의 다양한 변주에서 사랑이란 무엇인지, 사랑의 비밀은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우리는 특

정한 대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어떤 가치와 이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닐까? 진정한 사랑이란 사랑하는 대상을 창조하는 행위가 아닐까? 예술가들은 특히 그렇다고 저자들은 말한다. 예술가들은 스스로 사랑의 대상을 창조한 자들이고, 사랑의 주체가 되려고 노력했던 자들이라는 것이다.



## 황인종의 탄생: 인종적 사유의 역사

마이클 키백 지음 | 이호석 옮김 | 현암사 | 2016

인문학연구소가 기획하고 현암사가 펴내는 인문학 비평 총서 '우리시대의 주변/황당 총서' 시리즈 8권으로, 이 책은 '황인종'이라는 단어의 생성부터 확산, 변이, 재생산, 정립 및 전파 과정을 동서양의 다양한 문헌 속 용례를 통해 '황인종'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서구 중심적이고

자의적인지 파헤친다. 그리고 철저하게 서구의 입장에서 동아시아인을 혐오하고 두려워하며 구분 짓고 배척한 역사를 세세하게 기록한다. 18세기까지 동아시아인의 피부색을 표현하던 극단적이고 다양한 언어는 19세기에 이르러 '황색'으로 수렴됐는데, 그 배경에는 자연과학이 있었다. 1735년 생물분류학의 아버지 린네는 『자연의 체계』를 펴내며 인종을 총 네 가지로 분류했다. 초판에서 아시아인의 피부색은 '어두운 색'이라고 표현되다가 10판에 이르러 '황색'이라는 뜻과 '병색, 창백한, 죽은 듯한, 섬뜩한'이라는 뜻이 있는 단어 'luridus'로 바뀌게 된다. 저자는 이때부터 편견이 존재했다고 말한다.



## 능운집

오노노 미네모리 지음 | 김임숙, 김승룡 옮김 | 지식의만드는지식 | 2016

같은 한자 문화권인 일본에서는 언제 어떻게 한시를 읊었을까? 이 책은 일본 헤이안 시대에 왕명으로 당대의 빼어난 한시를 뽑아 엮은 것이다. '능운집'이란 '구름을 꿇을 만큼 뛰어난 새로운 시를 모은 시집'이라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한시와는 또 다른 운치와 멋을 느낄 수 있다.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천하오취안, 평상상 외 지음 | 김혜준 외 옮김 | 지식의만드는지식 | 2016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은 캐나다 화인 작가들의 최근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다. 천하오취안 편 『단풍비와 함께 걷는 길』(2009)에 수록된 작품들을 위주로 하면서 그 밖의 일부 작품을 추가하여 '남편 잃은 여자', '영원한 비밀', '우리 아들은 여느 집 자식과는 달라', '드림랜드의 군대농장', '동생이면서 동생 아닌', 등 16편이 번

역되어 있다. 이 책은 부산대학교의 현대중국문화연구실에서 장기 과제로 진행해 오던 번역 사업의 일환으로, 다양한 화인 작가들의 소설을 한국에 소개하고자 하는 멤버들의 공동 작업의 결실이다.



## 그녀의 진정한 이름은 무엇인가

오카마리 지음 | 이재봉·사이키 가쓰히로 옮김 | 현암사 | 2016

여성 할렐루부터 위안부까지 서양 페미니즘의 차별적 시선을 폭로하는 책이다. 저자는 서양 페미니즘의 뒷면에 숨어있는 '이문화(異文化)에 대한 차별의식을 꼬집고, 같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녀를 대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무신경함과 폭력성을 날카롭게 응시한다. 그리고 발

화의 기회마저 박탈당한, 말과 이름을 빼앗긴 그녀들에게 진정으로 이르는 길을 탐구하며 진정한 '자매애'를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한다.



## 한국 근대사상사

(민족문화 학술총서 65)

박정심 지음 | 천년의사상 | 2016

문명, 주체, 민족이라는 핵심개념을 통해 근대사상을 체계적으로 다룸으로써 한국 근대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근대사상에 대한 검토는 곧 전근대와 근대적 유산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의미한다. 서구와 다른, 그래서 성립가능한 한국의 근대사상에 대한 이해를 통해 비로소 우리는 타자와 구별되는 주체 의식을 정립함과 동시에 주체적 시각에서 우리의 삶과 세계를 인식할 수 있는 혜안을 갖게 될 것이다. 이러한 주체 의식은 타자를 차별하고 억압하기보다는 연대와 평화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